

영아의 차례 맞기와 어휘발달 관계에 대한 단기 종단연구

One Year Longitudinal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Infants' Turn-Taking and Vocabulary Development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김명순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
국장 김의향
삼육대학교 유아교육과
부교수 이유헌

Department of Child & Family Studies, Yonsei University

Professor : Myoung Soon Kim

Bureau of Childcare Teacher Certification, Korea Childcare Promotion Institution

Director : Eui Hyang Kim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Sahmyook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 Yoo Jin Lee

◀ 목 차 ▶

I. 서론
II. 연구 방법
III. 연구 결과

IV. 논의 및 결론
References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infants' turn-taking and vocabulary development during a one-year longitudinal study. Participants of this study included 46 infants who participated in both of the 1st and the 2nd tests. The infants' turn-taking frequencies were observed during mother-infant's free play for 10 minutes. The infants' vocabulary was investigated with MCDI-K for the 1st test and PRES for the 2nd test.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both t-test and Pearson's correlation. The research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turn-taking frequencies and vocabulary of infants increased with age groups. Second, there was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turn-taking and the receptive vocabulary in group A at T1. Thir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receptive vocabulary at T1 and expressive vocabulary at T2 among group A according to the infants' turn-taking levels.

주제어(Key Words) : 차례 말기(turn-taking), 영아의 어휘발달(infant's vocabulary acquisition), 이해(수용)어휘(receptive vocabulary), 표현어휘(expressive vocabulary)

I. 서론

영아기는 언어발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Hoff, 2007)로 언어의 출현으로 인해 비언어적 의사소통자에서 언어적 의사소통자로서의 전환이 이루어지며(Lee, 2006), 어휘발달이 급속히 이루어진다. 이 시기의 어휘발달은 초기 구어발달 뿐 아니라 문해발달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겨지며, 이후 언어발달을 예측하는 신뢰할만한 이정표 중 하나로 다루어지고 있다(Lee, 2009). 이에 국내에서도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언어연구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영아 언어발달 연구에서 다루어진 주제를 살펴보면 어휘발달과 문법에 관한 연구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의사소통능력, 음운, 문해 등의 순으로 연구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ang & Park, 2007).

사회언어학적 관점에 따르면 언어는 사회적 도구이며 어린이는 소통을 더 잘하거나 더 나은 사회적 접촉을 유지하기 위해 언어를 배운다. 이 때 언어가 생기는 사회적 맥락은 아기에 그 언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데 이 과정에는 영아-성인의 주고받음이라는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를 통해 영아는 어휘를 습득하면서 통사론이나 의미론 규칙을 습득하기 전에 대화의 규칙, 즉 소통의 기반이 먼저 형성된다. 돌보는 이는 영아의 행동에 반응을 해주어서 영아가 자기 의도를 소통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하며, 차츰 영아들은 이 소통 기술을 반복된 상호작용을 통해서 정교하게 만들어 간다. 이와 같이 의사소통 상황에서 적절한 기능을 고려하여 언어를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은 이후 또래 상호작용을 포함한 사회적 능력 발달 및 학습과 밀접한 인지적 발달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사회적 맥락에서의 구어적 상호작용 기술은 언어발달의 핵심을 이루며 이러한 기술의 발달로 인해 언어사용 기회가 보다 많이 마련되어 어휘, 문법 구조, 이야기 구조, 의미론 등을 포함한 언어발달이 더 촉진되어 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구어적 상호작용 기술이 요구되는 상황맥락에는 성인과의 게임놀이(예: 까꿍), 일상적인 의식행동들인 공동행위(joint action), 공동주의(joint attention), 차례 말기(turn-taking)를 들 수 있으나, 그 중 차례 말기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Lee, 2001).

차례(turn)란 사전적(The Society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2001)으로 둘 이상의 것을 공간적과 시간적으로 순서 있게 벌여나가는 관계를 의미하여 여러 상황에 적용되어 사용될 수 있는 용어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대

화 상황에서 나타나는 차례에 국한 시켜 차례 말기(turn-taking) 용어를 사용하였다. 즉, 차례 말기란 두 사람 이상이 대화를 할 때 순서를 번갈아 갖는 것을 말한다. 대화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화참여자들이 서로 말을 주고받는 사이에 긴 쉼(pause)이나 미리 정해진 차례 길이(turn length), 혹은 중첩된 차례가 거의 없이 부드럽게 진행되어야 한다(Lee, 2001).

여러 연구들에 따르면 차례 말기에서 차례(turn)는 대화 상대방이 말을 시작하기 전까지 한 화자가 화제에 대해 말하는 발화(utterance)로 정의했다(Cappella, 1979; Cappella & Planalp, 1981; Cherry & Lewis, 1976). 그리고 한 쌍의 발화 순서(a pair of turns)를 한 사람이 한 번씩 말을 주고받는 것으로 정의했다(Lee, 2001).

차례 말기는 언어학적, 화용적 지식이 포함되는 일련의 규칙을 바탕으로 한 숙련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Sacks, Schegloff, & Jefferson, 1974) 이 능력은 연령증가에 따라 점차 발달한다(Hadley & Rice, 1991). 차례 말기 능력의 발달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동 초기에는 대화가 자신이 말할 수 있는 주제에 한정된다. 대부분의 대화가 “지금, 여기(now and here)”에 관련된 것으로 발화길이 짧고 상대방과 차례를 주고받는 횟수도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아동이 학교를 다닐 연령이 되면 점차 대화방식이 세련되며, 상대방과 차례를 주고받는 규칙에도 익숙해진다(Lee, 1994). 만1세경 영아들은 눈 맞춤을 한 다거나 몸짓이나 소리를 통한 비언어적인 방법으로 주변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한다. 이때 의사소통의 주대상은 양육자이며, 동시 혹은 교대로 주고받는 음성교환이 기본적인 언어적 주고받기의 시초로 나타난다(Rosental, 1982). 이 시기에는 교대로 주고받는 음성교환보다 양육자와 동시에 음성을 산출하는 양상이 더 빈번하다. 그러나 이 시기가 끝날 무렵이 되면 영아는 한 번에 한 명씩 차례를 주고받는다는 규칙을 깨닫고 이를 따르게 된다(Bloom, Rocissano, & Hood, 1976). 만 2세 영아는 대화 상대방에게 음성적 언어로 어느 정도 반응할 수 있으며 두 번 정도의 차례를 주고받을 수 있으나 그 이상 계속되는 대화에는 더 이상 주의를 기울이기 어렵다. 이 시기에는 대화 상대방을 이해시키기 위한 말을 하기보다 자신의 의사표현을 하는 정도이다(Lee, 1994). 만 3세가 되면 이전보다 원활하게 서로 차례 말기를 할 수 있지만 여전히 “지금, 여기”에 관한 짧은 대화에 한정된다. 이 시기에는 대화의 사회적인 양상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하여

대화 상대방에게 말할 기회를 주고 자신이 말할 차례를 가져야 할 시기를 알게 된다. 만 4, 5세경에는 대화 상대방의 간접적인 지시문을 이해할 수 있으며, 유아가 상대방을 고려하여 다양한 지시어들을 상황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도 있다. 또 이시기에는 말차례를 주고받는 적절한 시점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대화 상대방의 말에 적절하게 반응하여 일정한 주제를 어느 정도 계속 유지할 수도 있다(Lee, 1994).

이상에서 살펴 본 차례 말기의 정의와 발달과정의 특징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만 3세 이전 영아들을 연구대상으로 하므로 차례 말기를 주 양육자인 어머니와의 대화상황에 국한시키고, 비언어적 형태로 표현되는 발화도 포함시켜 정의하였다. 즉, 차례 말기란 어머니-영아 간 대화에서 몸짓, 발성, 또는 단어 형태를 사용하여 상대방의 개입 전에 한 사람이 특정 사물이나 행동과 관련된 화제에 대해 대화를 주고받는 것처럼 반응하는 발화(utterance)로 정의하였다.

차례 말기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차례 말기의 구조와 특징에 대한 연구(Choi, 2003; Craig & Evans, 1989; Jeon, 1994; Jo, 2002; Lee, 2001; Nam, 2004; Sacks et al., 1974)가 이루어졌으며, 일부연구에서는 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을 비교(Craig & Evans, 1989)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장애아동을 연구대상으로 다루고 있다. 차례 말기가 초기 언어습득 과정에 있어 상호작용적 맥락을 제공하여 영아들에게 언어적 자극을 제공받고 의사를 표현할 기회를 제공한다(Owens, 2005)고 할 때 영아 초기에 나타나는 차례 말기는 영아의 언어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영아기 차례 말기와 언어발달 간 관계를 본 연구는 거의 부재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기 언어발달 단계에서 나타난 차례 말기와 언어발달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영아에는 언어능력이 미분화된 상태이고, 어휘가 언어발달을 평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이정표라고 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언어발달을 어휘발달로 살펴보았다.

한편, 언어학자들은 언어는 그 맥락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으며 소통을 하려는 요구는 내용과 형식을 선택하기 이전에 존재한다고 여기므로 일반적으로 화용론이 언어의 전반적인 조직원리라는 데 합의한다. 따라서 언어의 다섯 가지 영역-통사론, 형태론, 음운론, 의미론, 화용론-중 맥락이 나머지 네 가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화용론이 전체를 조직하는 영역으로 본다. 그러나 모든 영역들은 상호의존적이며 한 영역에서의 변화는 발달 때문이든 언어의 역동성 때문이든 다른 영역에서의 변화를 초래한다고 믿는다(Owens, 2005). 이러한 믿음은 발달과 치료개입에서 중요한 시사적 의미를 주어 언어병리 분야에서는 음운론, 의미론, 통사론 등 언어구조영역과 관련된 연구뿐 만 아니라 의사소통능력의 대화

적 능력을 살펴본 연구들이 이루어져 오고 있다(Fujiki, Brinton, & Todd, 1996; Prizant, 1983). 또한 언어발달에서 있어 의사소통의 역할을 강조하는 화용론적 관점은 언어의 의사소통 기능과 언어구조의 습득 사이의 관계에 대한 대조되는 견해에 영향을 미쳤다. 즉, 하나는 언어구조를 습득하는 관문으로서의 의사소통기능을 보는 견해이다. 이것은 처음에는 언어는 의사소통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체계로 습득되며 나중에 형식적 체계로 자동처리 된다고 본다. Snow(1999)는 이 견해의 입장에서 1세 전후의 영아들이 의사소통적 언어교환에 참여하는 정도는 나중의 문법발달을 잘 예언한다고 말하였다. 다른 하나는 의사소통기능과 언어구조의 독립성을 갖는다고 보는 견해이다. 즉, 언어구조를 습득하는 과정은 언어가 의사소통에 사용된다는 사실과 무관하다고 본다. Hoff- Ginsberg(1998)는 이 견해의 입장에서 의사소통 기술에서 앞선 아동들이 후에 언어적 기술에서도 앞서지 않는다는 예를 제시하였다.

이처럼 영아들이 초기에 보이는 화용론적 기초능력과 이후 언어능력 발달 간 관계에 대한 견해에는 논란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초기 영아들의 대화적 기술과 언어습득 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언어영역들 간의 관계를 이해할 뿐 아니라 초기 영아들의 언어발달을 이해하고 증진시키는 데 유익한 정보를 얻는데 의미 있는 것이라고 사료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13~24개월 시기의 영아의 초기 대화적 기술인 차례 말기와 어휘발달 간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단기 종단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즉, 차례 말기와 어휘발달 간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가를 알아보고, 차례 말기 수준에 따른 어휘발달의 차이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부모, 교사, 그리고 영아와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하는 이들에게 영아의 초기 영아의 차례 말기와 어휘발달 간 관계에 대한 이해하도록 돕고, 영아의 어휘습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영아의 차례 말기 특성을 이해할 뿐 아니라 언어지체여부를 조기 진단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영아의 차례 말기 수준과 어휘발달은 월령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1) 13~24개월 영아의 차례 말기 수준은 월령집단(집단A = T1 시 13~18개월; 집단B = T1 시 19~24개월)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2) Time1(이하 T1: 13~24개월)과 Time2(이하 T2: 25~36개월) 어휘발달은 월령집단(집단A, 집단B)에 차이가 있는가?
2. 영아의 차례 말기 수준과 T1, T2의 어휘발달 간 상관관계

는 어떠한가?
 3. 영아의 차례 맡기 수준에 따른 T1, T2의 어휘발달에는 차이는 있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첫 단어 출현이후 어휘의 급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인 13~24개월에 해당하는 영아를 모집대상으로 하였다. 1차 대상선정은 눈덩이 표집을 통하여 서울시와 경기도에 거주하는 13~24개월에 해당하는 영아의 어머니에게 전화통화로 연구 협조를 의뢰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경우로 이루어졌다. 연구대상 영아들은 계층에 따른 차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부모의 학력이 고졸이상이고, 사회경제적 수준이 중류층에 속하며, 부모면담 결과 신체운동, 인지 및 언어 발달상 문제가 없다고 보고된 정상 영아들로 제한하였다. 모집된 영아들 중 1차(Time1(이후 T1) = 13~24개월)와 2차(Time2(이후 T2) = 25~36개월) 검사에 모두 참여한 영아 54명 중 영아의 월령이 36개월을 초과한 영아를 제외한 총 46명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1차 검사는 영아의 월령이 13~24개월일 때 실시하였고, 2차 검사는 1차 검사 실시 후 약 1년 뒤인 영아 월령이 25~36개월일 때 실시하였다. 연구목적에 따른 비교를 위해 연구대상 영아는 1차 검사 시기 때 월령을 기준으로 하여 선행연구들(Bates, Bretherton, & Snyder, 1988; Hoff, 2007; Kang & Park, 2007)을 기초로 어휘습득의 급등이 이루어지는 18개월을 기준으로 두 집단, 즉 13~18개월(이후 '집단A'로 명명함)과 19~24개월(이후 '집단B'로 명명함) 두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각 집단별

영아의 수는 각각 23명이었으며, T1, T2 검사 시기 영아의 평균 월령과 남아와 여아의 비율은 Table 1과 같다.

또한 13~24개월 때 관찰된 영아의 차례 맡기 수준에 따른 T1, T2 어휘발달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전체 연구대상 영아 중에서 각 월령집단 별로 차례 맡기 수준의 백분위를 기준으로 상위30%, 하위30%에 해당하는 영아를 비교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각 월령집단 별 차례 맡기 상위, 하위에 해당하는 영아 수와 성별분포는 다음 Table 2와 같다. 집단A에서는 상위30%에 7명(남 2명, 여 5명), 하위 30%에 7명(남 3명, 여 4명)이 선정되었고, 집단B에서는 상위30%에 6명(남 3명, 여 3명), 하위30%에 7명(남 5명, 여 2명)이 선정되었다. 전체로 보면 상위30%에 13명, 하위30%에 14명이 포함되었다.

2. 연구 도구

1) 영아의 차례 맡기

본 연구에서 차례 맡기(turn-taking)는 선행연구들(Bloom, Margulis, Tinker, & Fujita, 1996; Cappella, 1979; Cappella & Planalp, 1981; Cherry & Lewis, 1976)의 정의에 기초하여 어머니-영아 간 대화에서 몸짓, 발성, 또는 단어 형태를 사용하여 상대방의 개입 전에 한 사람이 특정 사물이나 행동과 관련된 화제에 대해 대화를 주고받는 것처럼 반응하는 발화(utterance)로 정의하였다. 이 정의에 기초하여 영아의 차례 맡기는 어머니-영아의 자유놀이 상황에서 관찰시간 동안 발생한 영아와 어머니의 의사소통 중 특정 사물이나 행동과 관련된 화제를 유지하며, 상대방의 대화적 몸짓 또는 말하기에 연이어 2~3초 내로 반응하는 빈도를 표기한 후, 어머니가 시작한 발화는 포함하지 않고 영아가 대화처럼 이어가는 발화의 빈도를 계수하여 관찰시간 동안 발생한 순환(turn) 횟수의 총합을 산출하였다. 이 값을 다시 분석 자료에 사용되는

Table 1.
 The numbers, average month-age, and gender of participants by groups

Groups by age	T1 month-age M(SD)	T2 month-age M(SD)	Gender	
			Boys	Girls
Group A(n = 23)	15.43(1.41)	28.22(1.48)	11(47.8%)	12(52.2%)
Group B(n = 23)	21.09(1.54)	33.78(3.16)	12(52.2%)	11(47.8%)
Total(N = 46)	18.26(3.21)	31.00(3.16)	12(100%)	23(100%)

Table 2.
 The numbers and gender distribution of infants by turn-taking levels

Turn-taking levels	Group A			Group B			Total		
	Boys	Girls	Total	Boys	Girls	Total	Boys	Girls	Total
Higher 30%	2	5	7	3	3	6	5	8	13
Llower 30%	3	4	7	5	2	7	8	6	14

관찰시간 10분으로 나는 평균값을 평균 순환횟수로 산출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영아의 차례 말기에 대한 관찰자간 신뢰도는 연구대상 중 8쌍에 대해 본 연구자와 아동학을 전공한 보조연구자 1명이 분석한 자료의 일치도로 산출하였다. 그 결과 관찰자간 평균 일치도는 .96이었다.

2) 영아의 어휘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영아의 어휘발달 검사는 2차례(T1 = 13~24개월; T2 = 25~36개월)에 걸쳐 실시되었다. 어휘검사 시기의 영아의 월령을 고려하여 1차 검사에서는 8~30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어휘발달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MCDI-K(The MacArthur Communicative Development Inventory-Korean)를 기초로 Im(2002)의 연구에서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어휘목록을 사용하였고, 2차 검사에서는 만2세~6세 유아의 어휘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취학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척도(Preschool Perceptive-Expressive Language Scale: PRES)(Kim, Sung, & Lee, 2003)를 사용하였다. MCDI-K는 탈 것, 신체부위, 사람, 동물 등 23가지 범주, 총 729개의 어휘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영아의 일상생활에서 친숙하지 않은 어휘 11개를 제외하고 718개를 어휘목록으로 사용하였으며, 어머니가 보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해어휘 점수는 영아가 이야기하지는 못하지만 이해하거나 알고 있는 단어일 경우에는 이해라는 칸에 표기한 수의 합으로 산출하였다. 표현어휘점수는 영아가 정확하거나 거의 유사하게 단어를 말할 수 있는 경우에는 표현이라는 칸에 표기한 수의 합으로 산출하였다(Lee, 2006). PRES 검사는 수용언어와 표현언어 영역의 문항이 각각 45개씩 총 9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검사문항의 내용은 인지개념 및 의미론적 언어능력, 음운론 및 구문론적 언어능력, 화용론적 언어능력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PRES의 수용언어와 표현언어의 점수는 유아의 생활연령에 해당하는 연령단계에서 한 단계 낮은 연령단계의 첫 번째 문항부터 시작하여 세 문항 모두 ‘+’를 받는 연령단계를 기초선 단계로 하는 해당 점수에 유아 세 문항 모두 ‘-’를 받아 그 이상의 높은 문항들은 모두 못 맞출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최고한계선까지 추가로 답을 한 문항에 해당하는 점수를 더하여 산출하였다.

3. 연구 절차

1) 예비조사

예비조사는 1차와 2차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각각 실시하였다. 1차 검사 전 예비조사는 본 연구대상이 아닌 영아와 어머니 4쌍(13~18개월 2쌍, 19~24개월 2쌍)을 선정하여 놀이감이 준비된 실험실에 방문하도록 하여 실시하였다. 이들의 자유놀이

를 녹화한 자료로 본 연구자와 보조연구자 1명이 차례 말기 분석에 대한 관찰자 훈련을 실시하였고, 4명의 어머니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1차 어휘발달 검사 도구인 MCDI-K 최종 어휘목록을 선정하였다. 또한 예비조사에서 어머니-영아의 상호작용에 관한 선행연구들(Gogate, Bahrick, & Watson, 2000; Kim, 2000; Sung, 2000)에 기초하여 구성한 놀이감들을 한꺼번에 제공해 준 결과 놀이감의 사용과 대화의 주제가 산만하고 다양하지 못함을 보였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연구자가 놀이감을 자동차놀이, 인형놀이 및 요리놀이 세트로 구분하여 놀이 상자에 나누어 넣은 후에 순서대로 놀이에 사용하도록 제공해 주기로 하였다. 2차 검사 전 예비조사에서는 2차 언어검사를 위해 검사자 훈련을 실시하였다. 즉, 보조 연구자인 대학원생 1명에게 검사의 특성,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 및 실시상의 유의점을 먼저 설명해준 후, 연구대상이 아닌 30개월 된 영아 1명에게 언어발달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연구자는 검사 전 과정을 일방경을 통해 관찰하였다. 검사종료 후 보조연구자가 본 연구자에게 추가질문을 하고 답해줌으로써 검사 실시방법과 내용에 대해 확실하게 이해하도록 하였다.

2) 본 조사

본 조사는 1차와 2차 검사로 실시하였다. 1차 검사는 영아의 월령이 13~24개월일 때 실시하였고, 영아의 차례 말기와 1차 어휘발달 검사를 실시하였다. 2차 검사는 1차 검사 실시 후 약 1년 뒤인 영아의 월령이 25~36개월일 때 실시하였으며, 2차 어휘발달검사를 실시하였다.

1차 검사는 사전에 전화로 방문날짜를 정한 어머니와 영아가 놀이감이 준비된 실험실로 방문하여 실험실에서 실시되었다. 연구대상 어머니와 영아가 실험실에 도착하면 사전에 어휘목록 작성법에 대한 설명을 첨부한 MCDI-K 자료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작성해온 것을 수거한 후 본 실험실로 들어가 연구자가 어머니에게는 영아와의 상호작용 방법과 놀이감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하였다. 영아가 실험실에 익숙해지면 영아용 의자에 앉히고, 어머니는 놀이를 시작하였다. 본 연구자는 어머니와 영아의 상호작용을 방해하지 않도록 뒤쪽에 눈에 띄지 않게 있다가 한 주제의 놀이감으로 약 5분정도 놀이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 놀이감 상자를 제시해 주었다. 어머니-영아의 상호작용은 어머니와 영아가 놀이감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놀이를 시작하는 동시에 비디오 녹화를 시작하였고 세 번째 놀이감을 가지고 약 5분정도 놀이가 진행되고,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때 종료하였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영아의 자유놀이 상호작용은 15~20분 동안 녹화하였고, 어머니와 영아의 놀이 상호작용 중 놀이의 시작과 끝내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적극적인 놀이가 진행되는 10분만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2차 검사는 전화로 방문할 날짜와 시간을 정한 후 유아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였다. 검사를 하는 동안 방해받지 않도록 조용한 곳을 택해 어휘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사에는 15~20분 정도 소요되었다.

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2.0을 사용하여 연구문제에 따라 분석하였다. 연구문제 1에 대해서는 영아의 차례 맡기 수준과 어휘습득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월령집단 간 차이를 보기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2에 대해서는 영아의 차례 맡기 수준과 어휘습득 간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연구문제 3에 대해서는 차례 맡기 수준에 따른 어휘능력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월령집단 별로 *t*검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영아의 월령집단에 따른 차례 맡기 수준과 T1, T2의 어휘발달

1) 월령집단에 따른 13~24개월 영아의 차례 맡기 수준
 영아의 월령집단에 따른 차례 맡기 수준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 및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에 의하면 연구대상 영아의 전체 차례 맡기 평균 횟수는 61.57회였다. 월령집단별로 차례 맡기 평균횟수를 보면 집단A(13~18개월)는 48.96회, 집단B(19~24개월)는 74.17회로 나타났다. 월령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 = -4.06, p < .001$). 즉, 집단A보다 집단B의 차례 맡기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영아의 차례 맡기는 월령의 증가와 함께 향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월령집단에 따른 T1, T2 어휘발달
 영아의 월령집단에 따른 T1, T2의 어휘습득의 차이를 살

펴보기 위해 MCDI-K의 이해어휘와 표현어휘, PRES의 수용언어와 표현언어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Table 4에 의하면 T1의 이해어휘($t = -4.58, p < .001$)와 표현어휘($t = -4.34, p < .001$)의 월령집단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T1 영아의 이해와 표현어휘는 모두 월령이 높아질수록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2의 수용언어($t = -3.74, p < .01$)와 표현언어($t = -3.44, p < .01$)도 영아의 월령이 높아질수록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영아의 차례 맡기 수준과 T1, T2의 어휘발달 간 상관관계
 영아의 차례 맡기 수준과 T1, T2의 어휘발달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5에 나타나있다.

Table 5에 의하면 전체영아의 차례 맡기 수준은 T1의 이해어휘($r = .570, p < .01$)와 표현어휘($r = .463, p < .01$), T2의 수용언어($r = .533, p < .01$)와 표현언어($r = .415, p < .01$) 모두와 유의한 정적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영아들이 차례 맡기를 잘 할수록 어휘발달이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월령집단별로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집단A에서만 T1의 이해어휘($r = .508, p < .05$)와 유의한 정적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영아의 차례 맡기 수준에 따른 T1, T2의 어휘 발달 차이
 각 월령집단 별로 13~24개월 시기 때 영아의 차례 맡기 수준에 따른 T1, T2 어휘발달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 및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6에 제시하였다.

Table 6에 의하면 집단A내의 차례 맡기 수준에 따른 상위와 하위 집단 간 어휘발달의 차이는 T1의 이해어휘($t = 3.02, p < .05$)와 T2의 표현언어($t = 2.27, p < .05$)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집단B에서는 차례 맡기 수준에 따른 상위와 하위 집단 간 어휘발달의 차이가 T1의 이해어휘($t = 2.58, p < .05$)에서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Mean difference *t*-test of turn-taking by age groups during 13~24 months

	Groups by age		Total (N = 46) M(SD)	<i>t</i>
	Group A (n = 23) M(SD)	Group B (n = 23) M(SD)		
Turn-taking	48.96 (21.34)	74.17 (20.76)	61.57 (24.41)	-4.06***

*** $p < .001$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13~24개월 시기 영아의 차례 맡기 수준과 T1, T2의 어휘발달 간 관계를 단기 종단적 연구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별로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월령집단 간 영아 차례 맡기 수준의 차이를 살펴본

Table 4.
Difference in vocabulary by age groups for T1, T2

Test periods (test tool)	Groups by age		Group A(n = 23) M(SD)	Group B(n = 23) M(SD)	Total(N = 46) M(SD)	t
	Vocabulary					
T1 (MCIDI-K)	receptive		227.43(125.43)	388.87(113.22)	308.15(143.59)	-4.58***
	expressive		33.87(39.27)	160.26(134.12)	97.07(116.75)	-4.34***
T2 (PRES)	receptive		9.57(5.09)	15.78(6.14)	12.67(6.40)	-3.74**
	expressive		17.13(5.72)	22.00(3.68)	19.57(5.35)	-3.44**

p < .01, *p < .001

Table 5.
Correlation between turn-taking and vocabulary by age groups for T1, T2

Test periods (test tool)	Groups by age		Turn-taking		
	Vocabulary		Group A(n = 23)	Group B(n = 23)	Total(N = 46)
T1 (MCIDI-K)	receptive		.508*	.255	.570**
	expressive		.161	.323	.463**
T2 (PRES)	receptive		.342	.402	.533**
	expressive		.407	-.038	.415**

*p < .05, **p < .01

Table 6.
Difference in vocabulary by turn-taking levels for T1, T2

Test periods	Groups by age		Group A			t	Group B			t
	Vocabulary	Turn-taking levels	Higher 30% (n = 7)	Lower 30% (n = 7)	Total (N = 14)		Higher 30% (n = 6)	Lower 30% (n = 7)	Total (N = 13)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T1	receptive		329.57 (131.67)	145.00 (94.36)	237.29 (145.89)	3.02*	447.17 (74.84)	340.00 (74.43)	389.46 (90.53)	2.58*
	expressive		51.86 (57.61)	28.86 (29.54)	40.36 (45.57)	.94	210.00 (141.94)	90.86 (100.20)	149.54 (133.29)	1.89
T2	receptive		12.00 (5.83)	7.43 (1.99)	9.71 (4.81)	1.96	17.67 (5.16)	12.29 (7.48)	14.77 (6.85)	1.48
	expressive		19.29 (3.55)	12.86 (6.62)	16.07 (6.09)	2.27*	20.50 (2.95)	21.29 (3.99)	20.92 (3.43)	-.40

*p < .05

결과, 영아의 전체 차례 말기 평균횟수는 61.57회였고, 월령 집단별로 집단A는 48.96회, 집단B는 74.17회로 집단A보다 집단B의 차례 말기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영아의 차례 말기는 월령의 증가와 함께 향상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영아의 어휘발달에 의해 영향을 받아 더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영아의 어휘발달에 대한 어머니의 언어적 입력의 영향을 살펴본 Chang-Song, Lee, Kwak 과 Sung(2003)의 연구에서 영아의 월령이 높은 집단의 어머니가 언어적 입력의 수가 높았다고 보고한 결과에 기초할 때

영아의 차례 말기가 상호작용 대상인 어머니의 자극횟수가 증가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해 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는 단순히 월령증가에 따른 영아의 차례 말기의 차이를 살펴본 것으로 영아의 차례 말기, 영아의 어휘발달 수준, 상호작용자의 자극수준 정도가 어떻게 상호 관련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추후에 이루어져야 보다 명확한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월령집단에 따른 T1, T2 어휘발달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T1의 이해어휘와 표현어휘, T2의 수용언어와 표현언어 모두에서 월령집단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T1 영아

의 이해와 표현어휘는 모두 월령이 높아질수록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증가하고, 특히 표현어휘의 평균수는 집단A보다 집단B에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1의 전체 어휘 수에 있어 이해어휘가 표현어휘의 약 3배 정도의 더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우리나라 영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Chang-Song(2004)의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T1의 집단A와 집단B의 표현어휘의 증가율이 이해어휘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18~24개월 사이에 어휘폭발이 이루어진다는 보편적인 언어발달현상을 보여주는 결과(Owens, 2005)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T1의 각 집단 내의 이해어휘와 T2의 집단 B의 표현어휘에 있어 표준편차가 크게 나타나 영아의 어휘 습득에 있어 개인차가 크다는 것을 시사해 주었다. 특히 집단 B의 편차 폭이 집단A에 비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18~24개월 이후에 보편적인 현상으로 어휘폭발이 이루어지나 모든 영아에게 있어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영아들의 특성과 다른 환경적 요인에 의해 어휘발달 속도가 다르다(Hoff, 2007)는 사실을 지지해주는 것이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다.

T2 유아의 수용언어와 표현언어 역시 유아의 월령이 높아질수록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T2에서는 T1과 달리 월령집단에 따른 차이가 표현언어에 비해 수용언어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몇 가지 측면에서 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어휘검사의 실시방법에 의한 차이에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즉, MCDI-K는 부모보고식 방법으로 검사하는 반면 PRES는 검사자에 의해 생활연령에 따른 기초선에서 출발하여 유아들의 언어수준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T2 시기의 수용언어에서의 차이를 더 명확히 보여줄 수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다음으로 어휘발달 측면에서 볼 때 보편적으로 18~24개월에 표현어휘가 급증하기 시작하지만 T2 시기 영아들의 전체 어휘 중 수용언어에 비해 표현언어의 발달 차이가 적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T1 시기의 초기 언어발달 수준이 이후 언어발달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발달수준에서의 차이가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해 주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언어발달에서의 개인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조기에 발견하여 증대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13~24개월 시기 영아의 차례 말기와 T1, T2의 어휘 발달 간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전체영아의 차례 말기는 T1의 이해어휘와 표현어휘, T2의 수용언어와 표현언어 모두와 유의한 정적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월령집단별로 상관관계는, 집단A에서만 T1의 이해어휘와 유의한 정적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아의 차례 말기와 어휘발달 간 상관관계가 시기에 따라 변화한다

는 것을 시사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의사소통기능이 언어구조 습득의 관문으로서 역할을 한 후 둘 간의 관계성이 변한다는 견해(Hoff, 2007; Hoff-Ginsberg, 1998)를 지지해 주는 예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집단A의 T2 시기에는 수용언어에 비해 표현언어의 상관계수가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으나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이 아니므로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으나, 집단A 영아들의 표현어휘가 T1에 비해 T2 시기에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유추할 수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오지 않은 것은 대화적 기술의 하나인 차례 말기와 초기 어휘발달의 상관성이 점차 약화되어 간다는 것을 암시해주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집단B의 T2시기에는 차례 말기와 표현언어의 관계가 부적상관 계수로 나타났는데 이는 생후 2년 후반부터는 차례 말기 이외의 요인에도 영향을 받는 경우가 증가하기 때문일 것으로 유추된다. 또한 회용론과 기타 영역 간 상호연계성이 변화함으로써 차례 말기와 어휘발달 간 관계가 변화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영아 어휘발달의 개인차로 인해 전체 상관관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초기 의사소통기능과 언어구조 습득 간 독립성을 주장하는 견해와 같이 차례 말기의 수준과 상관없이 어휘발달에 있어 개인차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로 가능성을 유추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은 아니므로 해석에 유의해야 하며,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차례 말기뿐 아니라 어휘발달에 영향을 미칠 타 요인도 함께 탐색해보는 추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13~24개월 시기 영아의 차례 말기 수준에 따른 T1, T2 어휘발달의 차이를 월령집단 별로 살펴본 결과, 집단A내에서는 T1의 이해어휘와 T2의 표현언어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집단B에서는 T1의 이해어휘에서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3~24개월 시기에 보인 영아의 차례 말기 수준이 영아의 어휘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영아의 어휘발달의 특성, 즉 18개월 이전 이해어휘가 증가하고, 18~24개월에 표현어휘가 급증하는 특성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각 어휘가 급증하기 시작하는 초기 시기에는 차례 말기에 의한 영향을 받지만 점차 그 영향력이 달라지기 때문일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집단A의 T1 이해어휘, 집단B의 T1 이해어휘, 집단A의 T2 표현언어에서 차이를 보인 결과는 Morales 외(2000)의 연구에서 공동주의와 언어발달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성에서 나타나는 개인차, 즉 상호작용적 행위에서 나타나는 개인차의 중요성은 18개월 이후에 감소한다고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차례 말기에 의한 개인차 역시 18~24개월경부터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Hoff와 Naigles(2002)가 설명한 것처럼 본 연구에서의 영아들이

정상적인 영아들이기 때문에 표현어휘 발달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생후 2년 반이 지나면서 탈맥락적 상황에서도 화자의 안내를 모두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때문일 것으로도 추측해 볼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2차 검사에서 영아의 차례 말기 수준을 재검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명을 위해 추후에는 2차 검사에서도 차례 말기 검사를 다시 실시 한 결과로 관계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기초로 추후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 영아의 차례 말기를 1차 검사 때만 실시하였고, 그에 따른 어휘발달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에 각 월령집단 내의 차례 말기 수준의 변화를 상세히 살펴보는 데 제한이 있었으며 차례 말기와 영아의 어휘발달 변화의 추이를 함께 살펴보는 것에 제한이 있었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각 검사 시기에서 차례 말기도 함께 살펴보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영아의 화용론적 특성 중 대화적 형태인 차례 말기 현상만을 살펴보았다는 면과 차례 말기 특성에 따라 유형을 세분화하여 살펴보지 못한 데 있어 제한적이다. 그러므로 차례 말기 이외에 어머니-영아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영아의 다양한 형태의 상호적 행위를 함께 살펴보는 연구와 차례 말기의 유형을 세분화시켜 질적인 부분을 함께 살펴보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연구대상 선정에 있어 지역적 편중성과 영아의 수의 제한성으로 인해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고 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유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상아동 판별 과정이 부모 면담에 의해 이루어져 객관적 판단 기준이 모호한 부분이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객관적 판별과정을 통해 정상아동을 선정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일반아동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추후에는 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을 함께 비교하는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사회언어적 관점과 화용론적 관점에 기초하여 영아의 차례 말기 수준에 따른 어휘발달 간의 관계를 단기 종단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과 화용론과 기타 영역 간 상호영향력의 변화를 살펴보았다는 데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이 연구를 통해 영아의 어휘발달에 있어 영아-어머니의 상호작용 및 영아의 대화적 차례 말기의 상호 관련성의 변화 추이를 이해함으로써 영아의 언어 발달 변화에 대한 이해와 함께 언어발달 지연에 대한 조기 중재 시기를 유추하도록 돕는데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데 의미를 갖는다고 사료된다.

References

Bates, E., Bretherton, I., & Snyder, L. (1988). *From first*

words to grammar.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Bloom, L., Margulis, C., Tinker, E., & Fujita, N. (1996). Early Conversations and word vocalizations. *Journal of Child Language, 15*, 469-480.

Bloom, L., Rocissano, L., & Hood, L. (1976). Adult-child discourse: Developmental interaction between information processing and linguistic knowledge. *Cognitive Psychology, 8*, 521-552.

Cappella, J. N. (1979). Talk and silence sequences in informal conversation I.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6*, 3-17.

Cappella, J. N., & Planalp, S. (1981). Talk and silence sequences in informal conversation III: Interspeaker influence.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7*, 117-132.

Chang-Song, Y-K. (2004). Early lexical development of Korean infants: 8~17 months. *Korean Journal Psychology, 23*(1), 77-99.

Chang-Song, Y-K., Lee, K-Y., Kwak, K-J., & Sung, H-R. (2003). Relations of maternal linguistic inputs to lexical development of Korean infants.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6*(4), 227-241.

Cherry, L., & Lewis, M. (1976). Mothers and two-year-olds: A study of sex-differentiated aspects of verbal interac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12*, 278-282.

Choi, Y-M. (2003). An analysis of turn-taking of children with mental retard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gju National University, Kongju, Korea.

Craig, H. K., & Evans, J. N. (1989). Turn exchange characteristics of SLI children's simultaneous and nonsimultaneous speech.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Disorders, 54*, 334-347.

Fujiki, M., Brinton, B., & Todd, C. (1996). Social skills of children with specific language impairment. *Language, Speech and Hearing Services in Schools, 27*, 195-202.

Gogate, L. J., Bahrack, L. E., & Watson, J. D. (2000). A study of multimodal motherese: The role of temporal synchrony between verbal labels and gestures. *Child Development, 71*, 878-894.

- Hadley, P. A., & Rice, M. L. (1991). Conversational responsiveness of speech and language-impaired preschoolers.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Research, 34*, 1308-1317.
- Hoff, E. (2007). *Language development*. (H-J. Lee, Y-S. Park, & H-R. Kim, Trans). Seoul: Sigmap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2007)
- Hoff, E., & Naigles, L. (2002). How children use input to acquire a lexicon. *Child Development, 73*, 418-433.
- Hoff-Ginsberg, E. (1998). The relation of birth order and socioeconomic status to children's language experience and language development. *Applied Psycholinguistics, 19*, 603-630.
- Im, Y-S. (2002). Korean infants' vocabulary development and mothers' verbal behavio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Jeon, B-U. (1994). A study on the pragmatic competence by mentally retarded childr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Dankook University, Seoul, Korea.
- Jo, S-S. (2002). A study on the communicative behaviors of children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s: -Pragmatic characteristics at the early stage of language develop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Dongguk University, Seoul, Korea.
- Kang, E-J., & Park, H-K. (2007). Analysis of research on infants and toddlers' development.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27*(2), 139-161.
- Kim, K-J. (2000). The toddler-mother interaction types and toddler language develop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Duks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Kim, Y-T., Sung, T-J., & Lee, Y-K. (2003). *Preschool Perceptive-Expressive Language Scale(PRES)*. Seoul: Seoul Community Rehabilitation Center.
- Lee, H-J. (2001). Turn-taking characteristics of specific language impairment and normal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Lee, S-B. (1994). *Language acquisition and development for children*. Seoul: Jungmin Publishing Co.
- Lee, Y-J. (2006). The relationship among infants' communication aged 10 to 24 months, mothers' communication, and mother-infant interactive responsivenes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Lee, Y-J. (2009). The relationship between early communicative skills and vocabulary development, and the effects of early communicative skill on the vocabulary development for toddlers.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4*(1), 143-165.
- Morales, M., Mundy, P., Delgado, C., Yale, M., Messinger, D., Neal, R., et al. (2000). Responding to joint attention across the 6-through 24-month age period and early language acquisition.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1*, 283-198.
- Nam, H-J. (2004). Turn-taking characteristics of down syndrome and normal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Seoul, Korea.
- Owens, R. E. (2005). *Language development: An introduction*. (S-B. Lee, & H-R. Lee, Trans). Seoul: Sigmap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2005)
- Prizant, B. M. (1983). Language acquisition and communicative behavior in autism: Toward and understanding of the "whole" of it.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Disorders, 48*, 296-307.
- Rosental, M. K. (1982). Vocal dialogues in the neonatal period. *Developmental Psychology, 18*, 17-21.
- Sacks, H., Schegloff, E., & Jefferson, G. (1974). A simplest systematics for the organization of turn-taking for conversation. *Language, 50*, 96-735.
- Snow, C. E. (1999). Social perspectives on the emergence of language. In B. MacWhinney (Ed.), *The emergence of language*(pp. 257-276). Mahwah, NJ: Erlbaum.
- Sung, J-H. (2000). The language and the play of infa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The Society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2001). *Millennium new Korean language dictionary*. Seoul: Minjoong Publishing Co.

접 수 일 : 2011년 11월 14일

심사시작일 : 2011년 12월 7일

게재확정일 : 2012년 1월 11일